



# “제2공항보다 현 공항 확장 원해”... ‘쓰레기 처리’ 시급

## ▶▶ 제2공항 건설 등 지역 현안

제주지역 공항 시설 확충 방안으로 기존 제2공항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났으며, 성산읍 제2공항 후보지 선정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응답률이 높았다. 특히 제주환경에 대한 문제가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으로 꼽혔다.

▶제2공항 건설 방안=제주도민은 제주지역 공항 시설 확충 방안으로 '성산읍 제2공항 추진' (30.5%)보다 '기존 제주공항 확장' (46.9%)을 꼽았다.

국토교통부가 현재 성산읍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번 결과는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부정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.

뒤이어 '제2공항 건설-새로운 공항 임지 선정 (9.8%)', '공항시설 확충 반대 (5.9%)', '기존공항 폐쇄-새공항 건설 (4.0%)'로 답해, 10% 미만의 응답률을 보였다.

지역별로 보면 제주에서 '기존 제주공항 확장'이 50.3%로 절반 이상 얻은 반면, 서귀포시는 '기존 제주공항 확장 (38.1%)'과 '성산읍 제2공항 추진 (37.2%)'이 오차범위 내의 차이를 보이는 등 두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.

'기존 제주공항 확장' 응답률을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40% 이상을 상회했다. 구체적으로 40대 (49.7%)와 20대 (48.9%), 50대 (48.6%), 60대 이상 (44.1%), 30대 (43.7%) 순으로 나타났다.

지지정당별로 무당층 (49.6%)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(48.6%)에서 기존 제주공항 확

시급과제 1순위 '쓰레기 처리'... 경제·일자리 > 교통 등 순 제2공항 후보지 선정 절차에 응답자 절반 이상 "불공정" 행정체제 개편 방안 질문에 41.0% "행정시장 직선제 해야" 'IB 교육' 도입 긍정 응답 높고 국립공원 확대엔 찬성 우세

장을 더 선호했다.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'기존 제주공항 확장 (40.9%)'과 '성산읍 제2공항 추진 (38.8%)' 등의 의견이 비슷하게 나왔다.

도정 수행평가별로 보면, 부정평가에서 '기존 제주공항 확장 (54.1%)'인 반면, 긍정평가에서는 '기존 제주공항 확장 (39.5%)'과 '성산읍 제2공항 추진 (41.5%)'이 오차범위 내 차이를 보였다.

▶제2공항 후보지 선정 공정성=국토교통부가 성산읍 지역을 제2공항 건설 후보지로 선정한 절차가 불공정했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.

공론화 부재와 불투명한 임지 선정과정이었으므로 '불공정'이라고 응답한 도민은 55.7%로 나타났다. 반면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최적후보지로 선정된 것이므로 '공정'하다는 의견은 37.0%에 머물렀다.

지역별로 보아도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50%를 상회했다. 제주시 지역에서는 57.4%, 서귀포시는 51.1%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.

연령별 '불공정' 의견을 보면, 40대 (70.7%)에서 대다수로 나타났다. 30대 (60.1%)와 50대 (55.7%), 20대 (48.1%)에서도 우세했다.

다만 60대 이상 계층에서는 공정 의견이

44.7%, 불공정 의견이 45.4%를 얻어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.

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(61.7%)과 무당층 (51.1%)에서는 불공정이 우세하거나 다수로 나타났다.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선 50.8%가 공정하다고 답했다.

▶제주도 행정구조 개편안=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묻자 '직접 선출하는 행정시장 직선제'를 답한 도민이 41.0%로 가장 높았다.

뒤이어 '2개의 행정시 체제 (30.0%)', '4개의 기초자치단체 (13.8%)', '2개의 기초자치단체 (9.4%)' 순으로 응답했다.

지역별로 제주시 (41.4%)와 서귀포시 (39.8%) 모두 '직접 선출하는 행정시장 직선제'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.

연령별로 보아도 직접 선출 방식을 선호했다. 50대 45.9%, 40대 43.8%, 30대 38.9%, 60대 이상 37.0%가 이렇게 답했다.

다만 20대는 직접 선출 방식 39.6%, 2개의 행정시 체제 39.8%로 각각 응답해 양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비등했다.

지지하는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(48.0%)과 자유한국당 (37.3%)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직접 선출 방식을 꼽았으며, 무당층에서는 직접 선출 방식 36.4%, 2개의 행정

시 체제 37.2% 등으로 응답, 표본오차 범위 내의 차이를 보였다.

도정수행 긍정평가 (36.8%)와 부정평가 (45.9%)에서도 모두 '직접 선출하는 행정시장 직선제' 방식을 택했다.

▶제주도 시급 해결과제=제주도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'쓰레기 처리'가 꼽혔다.

최근 불거진 제주도내 쓰레기 처리난과 필리핀 쓰레기 반송 사태 등의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.

문항별로 보면 ▷쓰레기 등 환경 37.7% ▷경제-일자리 19.7% ▷교통 16.2% ▷하수-지하수 처리 7.9% ▷축산오염 6.9% ▷항공 5.9% ▷기타 4.6%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.

지역·연령별 분석에서도 가장 시급한 제주 지역 현안으로 환경 문제를 선택했다.

지역별로 보면 서귀포시가 39.9%, 제주시가 36.8%, 연령별로는 40대 43.3%, 50대 40.3%, 60대 이상 38.2%, 30대 35.5%, 20대 28.6% 등이 응답했다.

지지정당별로 보아도 마찬가지다.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40.6%, 무당층 36.1%, 자유한국당 지지층 32.5%에서 쓰레기 처리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.

▶IB 교육프로그램 도입 찬반=학생이 주도해 탐구 중심으로 학습하고 그 결과를 논·서술형으로 평가하는 프로그램인 'IB 교육프로그램' 도입 추진에 긍정적인 응답률이 높았다.

문항별로 보면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므로 '찬성한다'는 응답이 46.2%를 얻었다. 이어 IB 공교육을 거친 학생이 한국

의 주입식 대입을 치르는 데 어려움이 있고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 확보가 우려되므로 '반대한다'는 응답은 36.0%를 얻어 찬성 의견과 10.2%p 차이를 보였다.

지역별, 연령별로 보아도 찬성 비율이 우세했다. 제주시는 46.3%, 서귀포시는 46.1%가 찬성으로 답했다. 연령별로 20대 47.5%, 50대 47.3%, 4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45.9%를 얻어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. 다만 30대 계층에서 찬성 의견이 44.7%, 반대 의견이 42.9%를 얻어 양론으로 나뉘었다.

지지정당별, 교육감 평가별 평가에서는 의견이 갈렸다.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52.1%가 찬성한 반면, 자유한국당에서는 39.7%가 반대했다. 단, 찬성 의견이 38.6%를 얻어 오차범위 내의 차이를 보였다.

교육감 평가별로 보면, 긍정평가 계층에서 찬성이, 부정평가 계층에서 반대가 각각 54.3%로 집계됐다.

▶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사업 찬반=환경부와 제주도가 추진하는 '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사업'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다수였다.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사업은 한라산국립공원을 비롯해 오름과 꽃지, 도림해안공원 등 환경자산으로서 가치가 높은 지역을 하나의 국립공원으로 통합, 추진하는 것이다.

도민 71.8%는 환경 훼손과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.

해당 지역의 재산권 침해와 개발행위 규제 강화 등의 이유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24.1%다. 지역별, 연령별, 지지정당별, 도정수행평가별 조사에서도 모두 60% 이상을 상회하며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에 대해 찬성했다.

이소진기자 sj@ihalla.com

한라일보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.

## 서울제주도민회 회원들의 원활한 소통과 화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

회장 신현기

-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<b>부 회 장</b>       | 고 문 중 (제주시향우회 회장)    | 이 일 현 (제주시향우회 부회장) | 문 수 중 (한림읍민회 회장)    |
|                    | 강 성 언 (애월읍민회 회장)     | 윤 성 진 (구좌읍민회 회장)   | 김 승 은 (조천읍민회 회장)    |
|                    | 김 승 주 (한정면민회 회장)     | 추 경 안 (추자면민회 회장)   | 김 진 봉 (우도면민회 회장)    |
|                    | 강 영택 (서귀포시우회 회장)     | 현 인 혁 (서귀포시우회 감사)  | 허 능 필 (대정향우회 회장)    |
|                    | 고 경택 (남원읍민회 회장)      | 김 문 속 (성산읍민회 회장)   | 강 영 팔 (안덕면민회 회장)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송 충 진 (표선면민회 회장)     | 강 선 옥 (제주여고동문회 회장) | 김 명 갑 (제주고동문회 회장)   |
|                    | 김 명 준 (제주제일고동문회 회장)  | 김 세 양 (세화고동문회 회장)  | 김 영 진 (애월고동문회 회장)   |
|                    | 양 성 필 (서귀포고동문회 회장)   | 현 명 철 (남주고동문회 회장)  | 박 진 수 (제주중앙고동문회 회장) |
|                    | 양 진 옥 (대기고동문회 회장)    | 정 성 중 (대정고동문회 회장)  | 전 춘 희 (산성여고동문회 회장)  |
|                    | 정 석 준 (성산고동문회 회장)    | 조 문 식 (한림공고동문회 회장) | 한 상 용 (오현고동문회 회장)   |
|                    | 이 용 호 (제주교대사범동문회 회장) | 백 승 근 (제공회 회장)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강 근 추 (성산읍)          | 강 대 성 (성산읍)        | 강 동 원 (구좌읍)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고 안 근 (제주시)          | 김 광 후 (대정읍)        | 김 성 철 (구좌읍)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박 기 찬 (추자면)          | 박 대 진 (애월읍)        | 서 향 자 (제주시)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이 기 조 (제주시)          | 정 기 흥 (남원읍)        | 진 석 범 (한림읍)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이 복 자 (여성부 회장)       | 윤 문 유 (산악회 회장)     | 김 윤 경 (청년회 회장)      |
| <b>상근부회장</b>       | 김 남 권 (추자면)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<b>감 사</b>         | 김 종 호 (우도면, 세무사)     | 송 철 훈 (구좌읍, 변호사)   |                     |
| <b>도민회 신문편집위원장</b> | 현 우 중 (조천읍)          | 수 석 이사 김 상 윤 (구좌읍)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강 법 선 (제주시)        | 고 승 태 (한정면)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김 형 중 (대정읍)        | 문 영 지 (대정읍)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양 길 현 (제주시)        | 오 숙 자 (한림읍)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현 유 한 (제주시)        | 황 형 윤 (여성부 부회장)     |